

### 뇌농양을 동반한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 1예

김현리, 김종오, 신병철, 정종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은 만성 신우신염의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비교적 드문질환으로 중년여성에게 호발하며 대부분 만성적인 요로감염, 폐쇄가 동반된다. 이질환은 주로 일측성으로 나타나며 심한경우 신장 주위조직으로 파급한 경우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환자는 주로 요로감염의 임상 증상을 보이며 진단은 특징적인 방사선 소견과 조직검사로 확진할수있다. 저자들은 요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뇌농양을 동반한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47세 여자환자로 고열,의식장애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10여년전부터 발생한 신경성 방광으로 인한 잦은 방광염, 신우신염을 치료한 적이 있으며 내원 8년전부터는 신장기능감소 소견으로 대증적인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던 환자이다. 환자는 내원시 혈압 90/70mmHg, Hgb 8.2g/dl, WBC 19000/mm<sup>3</sup>, platelet 90000/mm<sup>3</sup>, 소변검사상 protein 1+, WBC many였고 소변배양검사상 Pseudomonas aeruginosa가 검출되었다. 복부 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상 우측신장에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신장주위 간장으로 질환이 파급된 소견을 보였다. 내원 수일후 촬영한 뇌컴퓨터 단층 촬영상 뇌농양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왼쪽신장의 기능이 비정상이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항생제를 포함한 대증적요법으로 약 2개월간 약물 치료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추적검사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상 호전되는 소견을 보여 외래에서 추적 관찰중이다

### 서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구적인 범하수체기능저하증과 공터키안증후군 1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sup>1</sup>

이상구, 김성균, 김연수, 안규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 장기현<sup>1</sup>

신증후성 출혈열 환자의 급성기에는 출혈성 뇌하수체 응고괴사로 인한 범하수체기능저하증이 발생하고 장기 후유증으로 공터키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한탄 바이러스와 푸말라 바이러스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서울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서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구적인 범하수체기능저하증을 동반한 이차성 공터키안증후군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45세 남자 환자가 내원 9일 전부터 발생한 고열, 오한과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열이후 구역, 구토와 두통이 발생하였고 발병 5일에 일시적인 의식소실, 저혈압과 핏뇨가 발생하여 인근병원에서 신증후성 출혈열로 진단받고 응급 혈액투석 후 전원되었다. 입원 중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시행한 한탄 바이러스 혈청검사에서 1:1280 이상의 역가를 보였고 추후 시행한 서울 바이러스 플라크 감소중화시험에서 1:640 역가를 보였다. 병기별로 시행한 복합뇌하수체자극검사에서 범하수체기능저하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급성기 뇌하수체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퇴원 후 경구 스테로이드와 갑상선호르몬 보충 치료와 고혈압 치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 중, 발병 후 4년에 1개월간의 투약 중지 후 측정된 기저 호르몬 치가 낮아 지속적으로 호르몬 보충치료를 시행하고 발병 12년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현재 환자는 호르몬 보충치료를 지속하며 특별한 문제 없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